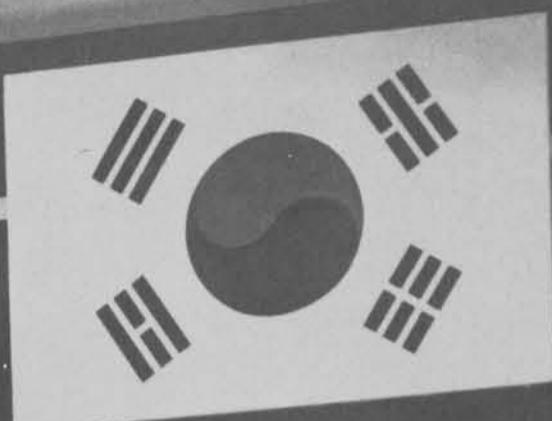


기념의 날



한국만화

1975 . 1



**Day of Hope  
Banquet  
in Seoul, Korea**





## 招 請 狀

希望에 찬 새해를 맞이하여 高堂의 萬福을 祈願합니다.

本人은 1972年 天意에 따라 美國에 건너가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MADISON SQUARE GARDEN) 大集會를 為始하여 美國 70個 都市에서 希望의 날을 宣布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一大 精神改革運動을 일으키고 돌아왔습니다. 지금 이 精神革命의 불길은 世界運動으로 번지어 온 世界에 퍼져 나가게 된 것을 하나님께 感謝하는 바입니다.

잠시 歸國한 이 機會에 나라를 사랑하시며 또 그동안 本人의 微力한 努力を 크게 聲援하여 주신 韓國의 指導人士 여러분께 感謝의 뜻을 表하고자 아래와 같이 晚餐會를 가지려고 하오니 부디 枉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日 時： 1975年 1月 16日 (木曜日) 午後 6時

場 所： 조 선 호 텔 볼 룸

參席與否：  
連絡處：

文 鮮 明

Upper left: Scene of reception.  
Our Master greets Speaker  
Chung Il Kwon, Korean  
National Assembly.  
Lower left: View of the 960 celebrated  
guests attending.  
Korean Day of Hope Invitation Card  
sent in the name of Our Master,  
January 16, 1975.  
A colorful ribbon was given to each  
guest that night.



# 희망의 날

## 한국만찬회



1975년 1월 16일  
조선호텔 볼룸  
희망의 날 만찬준비위원회

### M E N U

JUMBO SHRIMP COCKTAIL.

\* \* \*

CROUSTADE OF LOBSTER TAIL "AMERICAN"  
CREOLE RICE

\* \* \*

ROAST STRIP SIRLOIN OF BEEF IN SALT COATING

BAKED POTATOES

CAULIFLOWERS

CARROTS

\* \* \*

TOSSED GREEN SALAD

THOUSAND ISLAND DRESSING

\* \* \*

BAKED ALASKA

\* \* \*

COFFEE OR TEA

\* \* \*

PETITS FOURS

Day of Hope Banquet program at Chosen Hotel, Seoul, Korea, on January 16, 1975

Opening Address and Introduction of Head Table ..... By Col. Bo Hi Pak, substituting for Chairman Kim Young Whi, Executive Committee for Banquet Preparation

Prayer (Invocation) ..... Rev. Whang Jong Shik

Banquet Dinner

Report on Day of Hope Campaign in America ..... Col. Bo Hi Pak, President, Korean Cultural and Freedom Foundation, Inc.

Master's Banquet Address

Congratulatory Remarks ..... President Choi Duk Shin, Korean Religionists Assembly

Presentation of "Day of Hope" Film, including Madison Square Garden

Closing Remarks ..... Bo Hi Pak, substituting for President Kim Young Whi

### "희망의 날" 한국 만찬회

조선호텔 볼룸

1975년 1월 16일 오후 6시

개회사 및 키빈 소개 ..... 김영희

"희망의 날" 만찬회준비위원장

기 도 ..... 황종식 목사

만찬

문선명 선생 활동 보고 ..... 박보희

한국문화재단 총재

문선명 선생 인사말씀

내빈 축사 ..... 최덕신

한국종교인협의회 회장

영화상영

"희망의 날" 미국 강연 실황

폐회사 ..... 김영희

"희망의 날" 만찬회준비위원장

1975. 1. 16

DAY OF HOPE KOREAN BANQUET

# 「希望의 날」韓國晚餐會



Pictures:  
Top: Our Master addresses guests.  
Upper left: Head table with celebrated guests.  
Lower left: General scene after dinner.

文鮮明先生은 一九七五年 벽두, 韓國에서 처음으로 그 所信의 一端을 피력하였다.



「希望의 날」韓國晚餐會場 (朝鮮호텔 볼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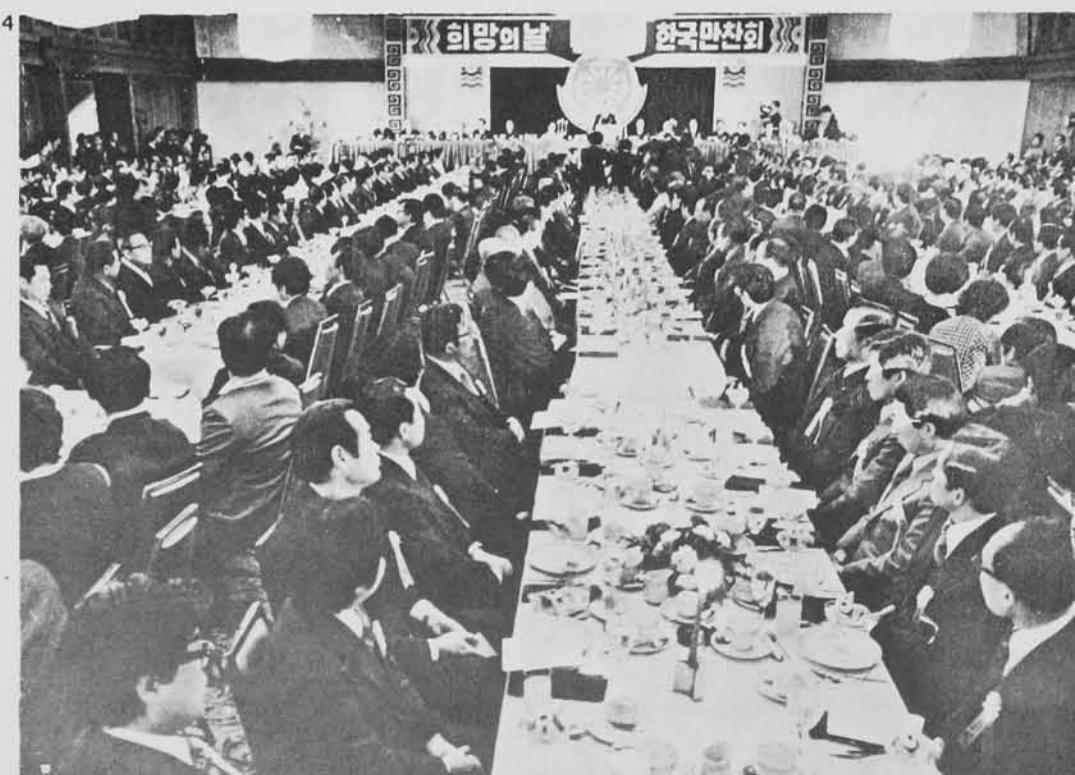


저명인사들에게  
연설하시는  
선생님

The Hankook Ilbo, Jan. 17, 1975

Total Story on Controversial 4 Years of Activities of Founder Moon Sun Myung of Unification Church

- 1 Our Master speaks
- 2 Professor Shin Sang Cho
- 3 Chairman Lim Byung Zik
- 4 General scene before dinner
- 5 Col. Pak reports on Day of Hope campaign in America
- 6 Our Master greets Dr. Lee Hang Young
- 7 Close up after dinner
- 8 Mrs. Yang Soon Dam, President, Korean Girl Scout League
- 9 Our Master greets House Speaker Chung Il Kwon
- 10 Our Master greets President Chei Duk Shin



6



7



李恒寧  
博士를 맞아

8



楊順淡  
韓國걸스카운聯盟  
會長

9



丁一權  
國會議長來參

10



崔德新  
教領을 맞아

禱

祝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韓國江山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韓國江山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各界各層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한국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始終의 神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智者이신 神의 땅에 대한 기도입니다.

Invocation (Prayer)  
at the Day of Hope Banquet,  
Seoul, Korea

Rev. Whang Jong Shik

Thank You, Father, for Your mercy on the land of Korea and for Your love for this land. You gave us the most beautiful name of this land, called, "Kumsou-Kangsan." Thus, many people dwelling in this land return glory to You and praise You for Your special concern and dispensation centering on this land.

Especially You gave us New Hope to the hopeless generation and also You have shown us the Day of Hope. We thank You for this realization of the Day of Hope banquet this evening.

We now return glory to You, from all the people attending here this evening, representing all leaders of different levels of the community in this land.

Father!! We pray that You only accept this glory from all of us and that Your Divine Will be fulfilled in this land. Even under such complicated situations in these days, You set up the Day of Hope for us and also You let us assemble together in one place like this; thus we are able to return glory to You. We thank You for this hour of blessing given to each of us here tonight.

Thank You for the establishment of Your precious religion on this divided land, and we know You have new plans and a new history for this land. Because God is one, the Lord is one, the Holy Spirit is one, and the Word is also one, You want us to form a new history and meet together like this; You want us to thank You together, returning glory to You. We pray You will rule over this gather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 ask that You be with the Banquet Executive Committee who made this Festival possible for all of us tonight. Especially we thank You for Your precious servant who has accomplished a great deal at home and abroad, in witnessing to God, based on an anti-Communist movement on this divided land, and in returning glory to God, under the banner of the Victory-Over-Communism ideology, in foreign lands, and in realizing the Divine Will among all people of the world.

We pray, Father, that when we dedicate this evening to You and hear the report of Your work, You control this gathering from the beginning to the end.

We pray that You be with Your loving servant who will continue Your work at home and abroad.

We pray, Father, that You bless each of us gathered here tonight, who have come from all levels of the community as its leaders, with Your abundant blessing, leading the gathering to glorify Christ, Our Lord.

Trusting everything to You, we pray in the Name of Jesus. AMEN.

黃鍾柏牧師



#### Congratulatory Remarks

Spreading Our National Prestige  
to the Whole World

**Chung II Kwon**  
Korean National Assembly

Realizing the year of 1975 as the Year of Hope, the Year of love and faith, I express my special thanks to Reverend Sun Myung Moon who initiated a Night of Hope this evening and invited so many celebrated guests.

As all you distinguished guests from home and abroad are already aware, Rev. Sun Myung Moon is now advancing our national prestige centering in America to the whole world. In the hopeful year of 1975, I believe Rev. Moon will promote even more of our national prestige in more dedicated ways.

Our national goal is the peaceful unification of Korea through the democratic processes; it must be fulfilled in that way. Also, unification must be based on the Victory Over Communism ideology, and Rev. Moon is the very person who is pioneering the way to bring this goal into reality. Therefore, we express our un-ending appreciation to Reverend Moon for planting V.O.C. thought among the young people throughout the world, and we pray to God for his 100% success.

I must apologize that I must leave early to attend to some urgent business before Rev. Moon gives his address after dinner. With all the celebrated guests gathered here tonight, I support Rev. Sun Myung Moon with a most warm heart, and I pray for Rev. Moon's continued success in the year of 1975.

Thank you.

뜻있는 1975년을 맞이해서 우리는 희망의 해요 사랑의 해요 또 민음의 해임을 자각하면서 文鮮明 목사님께서 希望의 밤을 주최하시고 이 많은 인사들을 초대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려 마지 않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文鮮明 목사님께서는 美國을 중심으로 全世界에서 우리 國威를 宣揚하고 계십니다.

희망의 75년에 있어서는 이 국위선양을 위해서 또 헌신적으로 믿음을 갖고 노력하실 것으로 믿어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平和의인統一을 기한것이온데, 이 통일은 누구나 다 民主的統一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또 그렇게 돼야만 될 것입니다.

또 이 통일은 勝共의統一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이 통일을 기약하는 선구적 역할을 하고 계시는 또 승공사상을 선세계의 젊은이에게 심어 주시는 文鮮明 목사님께 우리는 뜨거운 감사와 또 만강의 기원을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文鮮明 목사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실텐데 이 사람이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자리를 떠나게 된 것을 죄송하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모이신 貴賓 여러분과 더불어서 뜨거운 성원을 文鮮明 목사님께 드리면 서 희망의 75년에 있어서는 더욱 成功이 期約되기를 기원해 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 全世界에 國威를 宣揚

國會議長 丁一權

來賓祝辭



### Congratulatory Remarks

The Person Who Has Educated And  
Guided Foreign Young People

President Choi Duk Shin  
Korean Religionists Assembly

Dear Master Sun Myung Moon!!  
You have prepared this wonderful  
gathering and feast for all of us. Honestly  
speaking, I think that if I had prepared  
my congratulatory remarks after hearing  
your wonderful sermon, I would have  
prepared a better speech.

## 外國青年 드문드린 教育·指導하신 분

韓國宗教人協議會長 崔 德 新

오늘 이와 같이 좋은 모임에 자리에 마련해 주시고 성찬을 베풀어 주신 文鮮明 선생님, 사신상 제가 이제 그려한 선생님이 흥미로운 설교를 들은 후에 이 축사를 준비하였습니다. 조금 더 달리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모국에서 모친입니다.

그러나 시간과 여러 가지 관계로 저도 역사적으로 베풀어진 이 盛宴에 제 자신이 모친으로 축복한 축사를 낭독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주하고 베단 자리에 모임을 준비하여 주시고 더욱이나 축사까지 부탁해주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감사드립니다.

宗教界 指導者 여러분과 각계 지도자 모임입니다. 한국의 종교계는 일련 精神改革으로 새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그 바람은 한국 정치에서 세계를 통하는 것이며, 또한 세계 모든 곳에서 아무리 거칠게 불던 오는 暴風雪寒이라도 우리 땅에서 우리 韓民族의 精神화작업이 이하의 사람 모두가 한마음으로 바람으로서 화성 다시 세계를 통일하고 불어가고 있습니다.

몇년 전에 日本 京都 東京兩大都市에서 世界反共大會가 열렸습니다. 첫 차례전에서 詹天祐 일본은 西風으로 인해서 경제의 부흥은 이루어졌으나 점은 이를 바탕과 타락, 또한 시비리아 만주 철관을 거쳐서 들어온 雪寒을 받아들여 가지고서 共產黨을合法化 시켰고, 차이체리이 日本에서 版을 치고 있던 것이 사실입니다.

京都와 東京이 바로 사회당의 의회에 소집되고 있었습니다. 국수단을 반대하는 세계반고야회는 京都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수십만에 이르는 勝共大集會가 東京 한복판에서 대성황을 이루었습니다.

本人은 그 反共大會와 市民大會 참석을 무척 한증인의 한 사람입니다. 이러한 大國際會議와 市民大集會에 준비 진행, 그리고人力、物力에 동원된 것이 모두가 少數 日本의 男女青少年學生들이 이어서 진행되었습니다.

그들이 반희한 조작과 偽善을 살피는 한 흉내를 구비에서도 보기 드문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입니다. 나아가 인간으로서 우리 국민교육부 장관에서 希求하는 인간으로 비슷하게 된 듯 하였습니다.

指導層에 제자는 없습니다. 이렇게 흉내를 드는 詹天祐 선생님과 함께 교육시키고 지도해 주고 있는 것은 누구인가? 바로 오늘 이 만찬의 주인인 文先生입니다. (박수)

이와 같이 흉내를 하게 된 일본 남녀 청소년 학생들은 文先生을 아버지로 부르며 韓國을 아버지의 나라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文先生의 精神的指導를 치적 받고 있으면, 日本에서의 國際勝共聯合의 책임자인 「구보끼」가 바로 여기에 계십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 와서 우리에게 몇마디 한 바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기 내가 말한 것이 부인이 좀 잘못된다 하더라도 「구보끼」선생께서는 양해해주시고 잘 못되었으면 차후에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日本民族이 過去에 韓國民族에 대해서 많은 罪惡을 저질렀습니다. 한국에 대하여 속죄하는 바탕으로서는 일본의 구제승공연한 혐의를 이 일본을 것자으로 삼고 韓半島 南半部에 대하여 連鎖侵略하려는 共產主義의活動을 저지하고 일본의 조국을 반공세력으로서 종종 시키는데 노력하는 것』이라고 「구보끼」선생께서는 말하고 있었습니다. (박수)

However, considering the nature and mood of this noble and grand feast, I had better read my congratulatory remarks which were prepared in a serious and respectful mood. I deeply appreciate the invitation and also the opportunity to address some congratulatory address. I feel very much honored.

Dear religious leaders and community leaders!! The new wind of a great spiritual revolution is now blowing in Korean religious circles. The wind is Korean in nature, and is blowing toward the world. Even any severe snow storm coming from any place in the world to our land shall become soft and moderate to fit our physical body by the natural erosion processes in the land of Korea, and, in turn, the wind from the outside of this land will be blowing back to the world.

A few years back, the World Anti-Communist Conference was held in both Kyoto and Tokyo in Japan. Although Japan, after its defeat in World War II, regained the economic revival with the help of the wind from the West, demoralization and degeneration of the young generation was taking place, and finally the Communist Party in Japan became legalized; thus, leftist influence in Japan has become predominant now.

In both Kyoto and Tokyo where the Socialist Party got the political power, we held the World Anti-Communist Rally in Kyoto, which denounced and opposed Communism and in Tokyo, having a crowd of hundreds of thousands. The World Victory Over Communism conference was held in the very heart of the Tokyo metropolitan city. I, myself, am the very witness who participated and observed these two rallies and conferences, and found out that all their organizing ability, preparedness, effectiveness and procedures and like details, were done by a small segment of young men and women, and young college students in Japan. They manifested and openly exposed their extraordinary ability to organize and other proficiencies and effectiveness that cannot be found in any well-trained army troop. The humaneness of these young people in Japan which they showed to the public is very much similar to the humaneness which is expected from our National Education Constitu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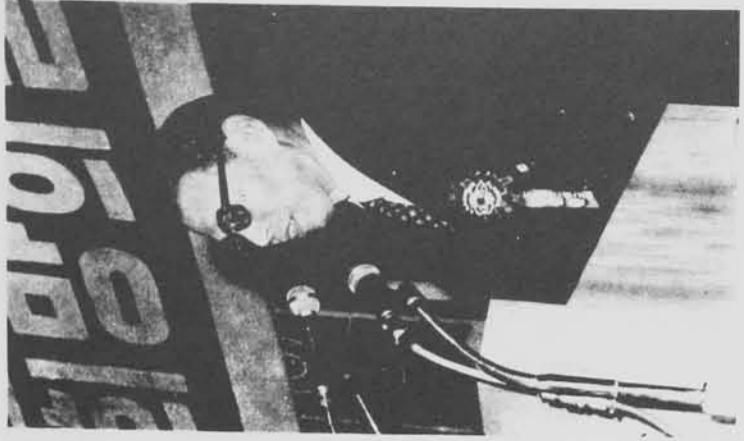
All community leaders gathered here tonight!! Who is the very person training and educating and guiding and disciplining these wonderful, joyous young men and women and young college intellectuals in Japan? He is the very person who invited us to the Day of Hope banquet tonight. (Applause)

Such wonderful Japanese young men and women, and college students, call Master Moon their "Father" and call Korea the "Land of our Father." These young people receive direct spiritual guidance from Master Moon. We have here tonight President Kuboki of the Japanese V.O.C. at the head table with us. Not long ago, Mr. Kuboki made some statement here in Korea. If I do not have the correct translation, please render me your correction. "In the past, Japanese nations committed many sins against Korean nationals. As a means of receiving forgiveness of our sins of the past, all the Japanese V.O.C. members try to stop the plans of Communist aggression to South Korea, and strengthen anti-Communist forces in Japan."

I, myself, did not know Japan very well, and used to feel not very positive toward Japan. However, since I am able to touch these Japanese people, my understanding of Japan and anti-Japanese feeling for that nation has become different.

In the year before last, I made a remark at the conference of the founding of the Korean-Japanese Religionists Assembly and insisted on the following point. "First of all, Koreans must become true Koreans and view Japan rightly. By the same token, Japanese must become true Japanese and then view





**"Hoping To Become A Great Strength  
In The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Minister Zin Do Sung**  
Unification Institute  
Republic of Korea

I speak now with no preparation. Since President Choi Duk Shin of the Korean Religionists Assembly spoke such excellent congratulatory remarks, I had better decline giving any formal congratulatory address. Instead, I would like to recollect that I am meeting Master Moon again tonight after 20 years. It must be 20 years ago, in 1955. At that time, there was a hot debate in our Korean National Assembly on the subject of "Whether the Unification Church is a false religion or not." At that time, I, as one of the National Assemblymen, was involved in the debate and argued on this subject on the floor.

At that time, I strongly insisted upon the point that it was not right to discuss the subject of "Whether the church in question is a false religion or not" in the National Assembly.

Actually, I did not know at all anything of the teachings or doctrines of the Unification Church, and neither did I intend to defend or take the side of the Unification Church in this matter. Nevertheless, I stood firm on the principle based on the Korean Constitution, which fully guarantees religious freedom, that the problem of church doctrine must be handled and solved within that context, not in the government nor in the National Assembly.

I did not know how much my argument influenced the issue at that time, but since that time there has been no more debate on the Unification Church on the floor of the National Assembly. Because of my involvement, I had the opportunity to meet Master Moon for the first time then, and this evening I met him for the second time since.

Frankly speaking, even now, I myself am ignorant of the teachings and doctrines of the Unification Church. Fortunately, since I am Minister of the Unification Institute, Republic of Korea, I have a feeling of closeness and intimacy which automatically goes to anything which carries the word, "Unification" (Tongil). (Applause)

This evening, I vividly recollect the things which happened 20 years ago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I also remember the Japanese-style headquarters building of the Unification Church which at that time was located on a very steep, small road leading upward, and inside a winding, narrow lane, at Chung-pa Dong Street. And now I have just heard from Mrs. Choi Won Pok that this old building is still used as the headquarters. Also, I remember they were worshipping in that old, shabby building.

worshipping in that old, shabby building. Now, however, the Unification Church has grown and expanded to a world-wide scale, and even this evening 650 celebrated guests from all levels of the community were invited to share a great banquet in the most gorgeous Grand Ballroom of the famous Chosen Hotel. Really, I feel and see the vast differences between the old and the present Unification Church.

Honestly, I wonder that this must be a so-called miracle from heaven, and must be the realization of God's dispensation. Still I feel this way. (Applause)

We extend our heartfelt thanks for inviting us this evening, and pray that the Unification Church may prosper, advance and achieve a great deal continuously, and further we pray sincerely for the continued success that could be the strong foundation on which our goal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can be achieved.

Thank you. (Applause)

南北統一에 큰 힘이 되어주시길

國土統一 完長官 慎道 晟

제 그 오른 손가락을 준비하지 않아요거나. 또 지금 카운터에 고령계의 손가락이 만족으로 다 하셨기 때문이 전 그 악수를 흔들수가 없구나.

그 며칠에 제가 한 20년만에 文先生님을 다시 만나 뵙게 되었기 때문에 회고담을 해보려 합니다.

지금부터 20년전 일어나자 1955년경으로 기억 되는데 그 당시에 이統一敎會라는 것이 사고나 아니나 우리國會에서 무관이 된 듯한 것 같습니다.

그 떼 마침 제 자신이 國會議員의 한 사람인 것 같았던 이 문제에 말려 들어 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 그 당시에 주장하였던 고 하니 사고나 아니나 하는 문제를 國會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옳지 않다 전 이같은 주장하였습니다.

제가 그 당시 教會의 교리를 잘 아는 것도 아니었다. 또 특별히 教會를 찾을려고 한 것도 아니었다. 전 단지 원칙적으로 말해서 우리나라 현대에 선정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또 교리상의 문제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교리상으로 해결해야 할 일인지 이 정부와 국회가 저기에 관심하는 선진의 것이 아니다 — 그 원칙

그런데 제 주장이 정답었던지 좌우간 그 노릇이 확대되자 않고 끝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  
제가 文先生을 뵙을 때 있어 말씀합니다.

이것이 처음 만나 봄 것이고 두 번째 만나 봄 것이 오늘 바로 이 자리입니다. 제가 지금도 솔직히 말해서 통인고학의 고리를 잘 모릅니다. 다만 제가 우연히 統一院長官 자리에 앉기 때문에 統一이라는 글자가 본문을 봤을 때는 1950년 만장이 든지 알 수가 없고, 감을 끌고 날뛰습니다。(박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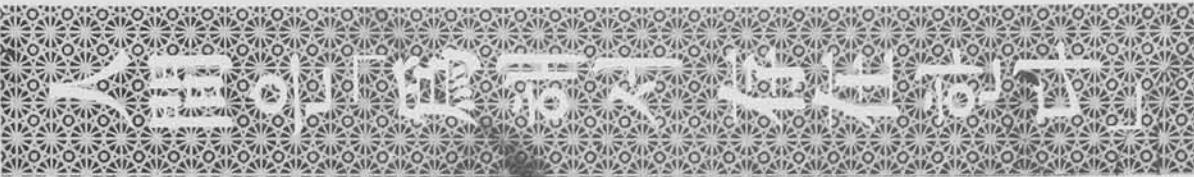
그러던 그 통로교회가 오랫동안 카톨릭이 고단으로 이끌어 죽임을 당하고, 또 오랫동안 이와 같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후회로운 이 조선을治理 그려드렸던 당시 각계 명사 600~500명을 이끌어 모시고 이같은 만찬을 하면서 그것들을 보고 그들이 고단으로 끌려온 것들을 다룬다.

제  $\frac{1}{2}$  이 되어 하루의 기적이 아닐까!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가 이루었지 것이 아닐가! 이런 것을 제가 느꼈으니  $10^{\circ}$  ( $\frac{1}{2}$ )

제 말은 이 것으로서 그만 치고자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불러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고 統一敎會가 앞으론 더욱 더욱 크게 발전하고 큰 成功을 거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南北을 統一하는데 하나의 큰 토대가 되고 하늘이 되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文鮮明先生 記念講演文

오늘 저녁 各界 各層에서 저명한 선생 몇몇은께서 이와  
같이 많이 친필서하여 주시며 데려온 진서로 감사를 드립  
니다.

여기 서 있노라니 사람들은 그만두고 다 아파버려 죽는다.  
서 많으니 物議를 일으키고, 더 나아가서는 美國에서 살던  
한 물의사를 일으키고 있는 것들이 여기 전문학자  
는 꺼구급으로 찾기 쉬어 도마체 그 文아무개라는 사람이 그  
여한 사람이 나하고 이 자리에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고 있었습니다.

그리 잘 죽기지 못한 이 사나이들이 그들이 살았던 이 보석  
고 잘 떠나가 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으셨습니다. (부수)

우리를 이 떠나고는 유품을 봐야 할 흔적은 더 이상 떠오르지 않게 짧은 이 주시기를 바라면서 우리를 위해 음악으로서 지원해 주신 金康燮 KBS 조음단 단장의 성려하고 애정에 박수로써 감사의 뜻을 표하게 한다. (박수)

또한 조선호텔 당시 차운제서 많았던 손님을 치르느라고 수고하셨는데, 조선호텔 당시 차운제서 떠나는 분들도 전시회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녁 이와 같이 모이신 분들께 예전 내가 바관전무  
수는 말씀을 들은 적이 나에게 뜻을 듣기 위해 왔습니다. 잠깐 인사  
를 드리고 그 만도 면 좋겠지만 그냥 그대로 앉게 되면 여러

କୁଟୀର୍ବଳ ଅନ୍ତର୍ମାର୍ଥ ଦେଖିବାରେ କହିଲା ।

우리가 살피하기를 사랑이니 이사이나 행복이나 꿈이나 하는 말인 혼자 살피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인 반드시 相對的關係에서 살피는 행위가 바운티 아무리 절대자이신 하나님께서 하더라도 그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랑과 이사과 행복과 꿈과는 흥미로 이를 수 없느 것입니다.

하나 그 차이에 대해서도 반드시 살피며가 필요한 것이다.  
물론 그것이 가증문에 도록 해 이被造萬物 가운데 하나  
내의 짜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어디 있고 나고 反問  
한다면 그것은 두 말할 것 없이 인간 외에 그 짜다는 결론은  
이 자당히 끝난다.

하나님의 理想을 成事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성사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행복과 하나님의 평화를 완전히 을 수 있는 그 對象이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은 생각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자서 사랑해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혼자서 이 세상을 사랑하시는 말씀이며, 하나님은 혼자서 영광이나 행복이나 해서는 말씀하는 말씀입니다? 반드시 相對的인 人間을 통하지 않고는 이러한 말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은 단정하고 결론입니다.

이렇게 생각한 데 내가 여러모로 앞에 한 가지 묻고 싶었는데,  
여기에는 著名한 人士들이 모였지만 여러분들이 점잖으셨을 데  
自己의 對象을 백한 데에 자기보다 못난 사람을 원했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분들이 文 아무개 만났더니 아무 얘기도 안 하더라고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신풀 즐 알기 때문이 이제부터 本人의 所見을 잠깐 말씀해 보겠습니다.

自古로 人類는 真實하고도 친밀하고 면치 無害한 사람과 이  
상과 해롭고 真實한 그려 았던 것들을 우리는 알고 있느니라  
나다。 오직 그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 종류 사람에는 不信의  
심장이요, 懸念의現在이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조건은 要件들을 차아서 成事한다는 것은  
이미 봉수가 되는 단계를 부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할 수 있던 그 범위를 다 헤쳤지만 그 이전에 오전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한계는 그 당시 우리 인간으로서 아울러 그 이상의 면모로서 창조하고 통제하고 관리하는 대상에 관심이 를 찾아 그 부분에게 依存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끝이 죽다인 사람, 죽다인 이상, 죽다인 청년, 죽다인  
늙어버린 그때의 그 사람이 봄을 살피니 그 봄이 가고는 수  
없는 고우리가 되자 더 없을 수 있느니라.

정말 괜찮았던 그 날 보니 전 난 사람들은 원래였다 고 누구나 라디오를 듣고 다.

더 나아가서 어떤 美男美女가 결혼을 해 가지고 그것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그의 어머니 아버지의 얼굴에 비하면 잘 생기지 못했다 하여도 그 아기에 대해서, 당시에 아기는 당시의 얼굴보다도 더 잘 생겼다고 한다면 그 부모가 기뻐하는 짓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런 한 사 실 을 얻 어 가 하 게 물 을 물 헤 도 떠 쳐 이 인 간 이 누 구  
말 아 서 이 럼 게 했 는 나 하 는 것 을 우 리 는 反 問 하 지 않 을 수  
없 는 것 입 니다.

사람은 어디까지나 結果의 存在이지 原因의 存在가 아닙니다. 결과적 존재가 그러하다면 반드시 원인이 그러한 내용을 지녔기 때문에 그려한 결과가 되었다는 사실은 당연한 결론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하므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  
에 그런 철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 당시의 대상이 되는 그 존재가 하나님보다도 더 훌륭  
하기를 바라느냐 못하기를 바라느냐 이런 질문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대상의存在가 차기보다도 훌륭하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자기 아들이 자기보다도 출중공하게 디기를 바라지 않 을 수 없다는 것을 당당히 결론이니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불 떠 오르는 우리 인간、우리 차체를 봄 때는 아무 것도 아니

지만 이와 같은 原則을 통해서 보게 될 때 우리 인간 자신이 확실한 나침보나도 확신하지 않을 바라고 흔한 나침보나도 가치 있는지를 바라는 인간이 있다면 그것을 미워 물었을 것이다.

오늘날 既成神學은、創造主와 被造物은 對等한 자리에 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읍니다。만일 그렇다면 그 창조주 앞에 사랑의 實現、平和의 實現、理想의 實現、幸福의 實現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 책은 원래 1970년에 출판되었던 책을 번역한 책입니다. 원제는 '한국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한국 경제학자들이 어떤 학제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지, 그들의 연구 주제와 방법론, 그리고 그들이 경제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저자는 특히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분야 외에도 다른 학제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들이 경제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저자는 특히 경제학자들이 경제학 분야 외에도 다른 학제적 분야에서 활동하는 경우, 그들이 경제학 분야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살펴보려고 했습니다.

俗世에서 살고 있거나 우리 농가에서 살고 있어도 사람에게  
예의를 갖추고 서 있다가 그에게 말을 바라보니 사람으로 그  
구도 염려로 살았던 것이다. 사람에게 자식과 같은 사람을 살고 살았던  
사람은 모두 살았던 것이다.

이 량<sup>량</sup> 게 보게 될<sup>을</sup> 우<sup>우</sup> 리 인간<sup>인간</sup> 자체<sup>자체</sup>에 있<sup>있</sup>는 서 하나<sup>하나</sup> 놓<sup>놓</sup> 이 永

生永遠하고 한나같으니 唯一하고 雖然사운드하고 아름다  
듯한마음 수 있고 般若사운드하고 普遍이 菩提사운드하고 가르가 無外  
이 普遍한마음 수로 가진 이 菩提사운드하고 般若이라고 說이니  
을 수 說이니 說이니

主体가 계신 부처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몇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각자 각자 알 수 있는 수 척다른 자는 그 자체로는 알 수 있는 수 척다른 자는 두 진가인 데 대해 理想의 要체를 알 수 있다. 두 진가인 데 대해 理想의 要체를 알 수 있다. 그것이 하나님이시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수 척다른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참다운 理想, 참다운 사랑, 참다운 生活이 있었

서 主體를 中心 삼고 對象이 何하건마 理想的 起源을 選ぶ  
것이니 주체로서의 我身은 何한가니 이身이 身가 身이니 選이  
나 하기로 意識을 何한가니 그 身과 意識은 그 이身이 身가 身이  
주체와 何이니 對象이 何한가니 何身이 身이니 身이니  
나 身이니 그 身과 身이 何한가니 모든 사물도 사기가 有無로 對象  
을 有無로 有無로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何한가니  
이 何한가니。

하나 끊을 수 있고, 청진의 기운이 끊을 수 있거니 그 깊은 어  
마나 끊거나。 하나는 자식과 자도 하나인 이기적인 우애가 주  
재 하나는 이 개인적인 친구가 끊거나, 즉 하나다. 그  
밖의 기 때문인 하나인 친구가 끊거나며 서부터, 하나는 相  
도 爲하는 끊거나며 서부터, 하나인 청진도 끊거나인 청진이 우하는  
자리를 떠나서 끊을 수 있거나, 즉 하나다。 이것이 天地劍  
의 根本이 있거나, 우리에게 있거나, 몰랐거나다.

संस्कृत भाषा में ठिक सही है कि यह प्राचीन वर्णना अवश्यक है। इसके अलावा एक और विवरणीय वर्णना यह है कि यह वर्णना विश्वास के लिए बहुत अच्छी है। इसके अलावा एक और विवरणीय वर्णना यह है कि यह वर्णना विश्वास के लिए बहुत अच्छी है।

이 송자 저니여, 속성으로 사령으로 수 있노라 이 봉하고 오, 흥부  
과 청호의 속성으로 나타날 수 있노라 속성이다. 이 외 같  
이 보게 雖 죄 우리 높은 땅 가서 하나님의 公式이 挑小한나라에 위  
해 서 충자하고 높은 땅 가서 높이 이 외 같은 이 송자 윤경이 호이  
침범된 사령, 침범한 흥부, 침범한 청호 죄가 되 수 있나니 그들이  
이 죄 우리 높은 땅 가서 하나님 높이 있노라니.

그러면 산위 날개도 어려워 날개이니 그는 아내를 위해 서 태어났나. 아내는 위해 서 살고, 아내는 위해 서 죽는다는 입장에선 날개는 아프고 아내에게 있어 서 과연 참된 사랑의 주인이요, 참된 이성의 날개이요, 참된 부처와 부처의 체로서의 날개에 틀림없다. 그 차이는 하지 않으면 수 없던 것인 것이다.

한국의 역사학자들은 역사에 대한 이해를 통해 역사학을 연구하는 학제적 분야로 인식하고 있다.

第一 聖人이 놀라 반문하였다. 이 공경을 듣고서 우  
리는 곳 찾아 볼 수 있는가니라. 보다 더 놀랄 것은 그  
이 아닐 수 없으니라. 그런 다음에 그가 기독교를 신  
봉하자마자 당나라 관리들과 함께 몇십 명의 천사들이  
진리를 위하여 그를 찾았고, 그를 찾은 천사들 중에는 아버지  
기가 온았다. 그에게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죄악하는  
지 아니인가? 자기를 기도해 주시며 그리스도교로  
사신에 傑人 中의 傑人이라 는 結論은 타다니 전설이라고,  
이 공경을 통하여 전설을 수 있구나니라.

이 럼<sup>恁</sup> 宇宙創造의 原則 이요、人間 幸福의 起源 이 「爲<sup>爲</sup>」  
存在하는 데 있<sup>있</sup>는다는 것을 우리는 생명<sup>生</sup>가 하<sup>하</sup>면 좋<sup>好</sup>면 안<sup>不</sup>되  
생<sup>生</sup>을<sup>을</sup>나<sup>나</sup>다<sup>다</sup>。

ੴ ਕਾਲ ਦੇ ਹੋਰੀਂ ਸੁ ਮਨ ਅੰਦਰ੍ਹੇ ਪੂਰੇ ਵੇਂ ਠੱਕੇ ਗੇ ਛੈਣ ਰ  
ਗੇ ਪ੍ਰੇਂ ਠੱਕੇ ਗੇ ਛੈਣ ਸਾਠ ਵੇਂ ਪ੍ਰਾਂਤ ਦੇਣ ਵੇਂ ਪ੍ਰਾਂਤ ਵੇਂ ਗੈਲੀਂ ਕੇ ਕੇ ਸੁ  
ਸਾਠ ਪ੍ਰਾਂਤ ਅੰਦਰ੍ਹੇ ਗੈਲੀਂ ਕੇ ਕੇ ਸੁ ਵੇਂ ਗੈਲੀਂ ਕੇ ਕੇ ਸੁ ਵੇਂ ਗੈਲੀਂ ਕੇ ਕੇ ਸੁ

惟小教者溫柔謙遜 해야 되며 허망해야 되거나 하는 문  
체로 고장에 돌아가게 될 데니 故鄉의 法度가 그렇기 때문  
에 地上生活過程이 그 고장에서 한때나마 한때나마 얹을 수  
없는가 짐작되고나다。 그렇기 짐작하는 高次의 이 종교에는 보  
나 차원 級이니 한정으로 가고하고, 봉사하는 가고하고는 아니고 세상  
평소의 生活을 그 世界에 放入하노라니 그 데인인 것  
임고다。 이전에 서상을 드리고 청진 聖蹟을 드리고 드리고  
온 청진을 드리고 그 자비가 無往而不通의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온다니니 無往而不通의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통하고

하고 아내가 죽었어 이 땅에 청진과 함께 살았던 그들이 아내가 아름다워서 그녀를 살피고는 부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 체육학회는 1975년 10월 10일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한국 체육학회는 1975년 10월 10일 제1회 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하나님이 계시는 本然의 世界, 오직님 종교에서 말하는  
天國이나 極樂이나 하는 그런 곳의 構造가 무너울 기준이  
로 하고 떠나고나 하는 問題의 答은 간단하다는 것뿐인  
다.

爲해서 났고 爲해서 살고 爲해서 죽어 잔사람들이 들어가는 곳이다。  
이것이 우리 本鄉의 理想的構造이기 때문이다 하니 그 체계에 차이하게 하기 위해 历史過程에 수많은  
증고를 하여 가지고 호언시켜 오는 것이다。

그러면 그 A는 1‰이 200과 같은수는 그 표시를 캡션  
서 보다 더 많이 그 표현을 빙그리 가지고 찾아주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고 빙그려 놓으니 서 끌려주고 빙그  
그것이 수가 끌려나서 빙그려온수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일은 빙그려온 수는 빙그려온 수입니다. 차이가 차서 水滸이란 概念이  
있어서 빙그려온 수입니다。

如是의 王法시는 하니며 이 爲法서 在在하라는 法度를 세운 것은 王法을 수 있게 하기 위함서 그러한 欲望을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라는 神직자에게 알았을 수 있었는지이다。

이서 前進하고 發展하는 趨向이다。주체의 원천에서 前進의  
인 軌轍을 뛰어넘을 수 있는 데서이다. 흥미롭게도 韓國은 韓國은  
한국은

아흔 살 사는 저기에서 나 스스로로 가 후회하고 싶어. 아버  
라 아흔 살 아흔수를 이내 中心存在로決定하고 싶었구나.  
마침 하나님을 만날 때마다 그에게 기쁨으로 그려온 자리  
에 선 사람으로 하나님을 中心存在로 봐야지 않겠을 수 없겠지  
그 때문이니 그 자리에서 理想的統一,  
完全統一을 成事시킬 수 있다는 것인구나.

호흡의 세계에서 말하기를, 아! 이 쪽이 무언이니! 人生觀에 대한 確立、國家觀에 대한 確立、世界觀에 대한 観念、  
더 나아가서는 宇宙觀에 대한 観念、그 다음에 神觀에 대한 観念、이것이 어떤가 된 것이다。系統的段階、  
전서를  
마다 둘 것이다、그 次元的系列을 어떻게連結시킬 것  
이냐 하는 무관한 가장 시장한 무관한 것인 것이다。

그러나 爲 해 存在 하다 는 이 現狀 이 있가 해 보게 될 때 우  
리 인 生 球 을 두고 보면 가지 價値 있는 人生觀 은 내가 全人類  
를 爲 해 있고, 全世界를 위 해 있고, 國家를 위 해 있고, 社  
會을 위 해 있고, 家庭을 위 해 있고, 아버지를 위 해 있고, 자  
녀를 위 해 있다 는 이러한 現狀에서 幸福 한 自我 를 발달 할  
수 있다 면 이 이상의 人生觀 이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면 國家自體를 둘고 보더라도 국가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理想的인 國家는 아예 죄아 되느냐。자기 나라를 위해 서 싸울 줄 아는가하고 그나마 국가는 국가가 된 것임을 우리에게 알사를 풍기면서 한동안은 그나마 국가는 국가로 여겨졌습니다。

그렇지만 그 나라가 치세를 위해서 있는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韓國이 전 아시아 바와 같이 共產主義는  
破裂狀況에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1957년  
을 하니의 頂點으로 하며 전라전 안동 등 고적들이나.  
진은, 송현을 爲主한 공공자주를 單一民族을 중심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 그 위에서 존재하는 그  
영역 주체로 사는 것은 그에게는 철학적인 대상이 되어  
도 생각하지 못해온 것이다。各界의組織을 이루는 체계는  
의 大世界에 서 그 정체를 그 정체화하는 우주만이 이  
야 한다. 이에 존재하는 그 종교는 그것이 체계를 그 모든 영역에  
부여한 것은 그에게는 철학적인 대상이 되어, 千年萬年에 걸친  
도 감지할 수 있는 理想的統一圈이 成立되는 그 속에는  
알기 체계는 허나 그것이 爲體而存在하는 原則을 찾아서  
을 알 수 있는 것이다。또 하나의 원인으로서 종교가 그  
理想의 체계를 한 가지로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나 그게 아닙니다. 사람으로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理想이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生命나 도 賽汗 사람과 이성으로서 나아가며 찾을 수 있는 나한테 獻象이 깃든다면 그게 아닙니다。온 세상 우리들은 이전 말씀 청각자지 몸짓입니다。이 高貴汗 사람과理想의 밖을 수 있는 그려진 存在가、 그것을 찾을 수 있는 存在가 繫繩이 가 씨면다' 우리부 철석으로 그를 끌어들이면 안되니 가장 爲하나 자리가 아니고는 이래들을 밖을 수 있으므로 하나 됨이란 無체로 하니 존재하는 철석을 끌어들이면 안되는 수 있으므로 하나 되는 것

自己自體의 領導을 주는 民主主義의 公平公正의로 등장했기 때문이  
결국 이 領導하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美國自體가  
民主主義主導國家에서 몰라하는 實像을 우리는 卓犧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世界를指導하는 領導자가 되어 한  
터이므로 봉구하고 世界를 버리고 自體를 위하려고 하는  
美國이 됐기 때문이 이 미국은 이제 後退의一路에 선 그  
미국으로서 수습한 것이 많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를 두고 봄 때 오늘날 하나님의 國家觀確立을 韓國에서는  
提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국가관 확립으로 본 아시아에  
있어서 韓國만을 爲主로 한 國家觀確立은 歷史時間 및 時  
代를 지나가는 것입니다。蘇聯共產黨이 그랬고 美國 자체  
가 그런 것을 보게 된 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나  
라는 자고 少數의 民族이지만 그리고 만약 나라가 많다 하  
더라도 21세기 혹은 25세기 혹은 30세기, 그런 데에 많아  
서 그 韓國民族이 지녔던 세계를 아하는 이런 民族思想을  
가졌더라면 한국은 기원고 그 데에 가서는 世界를指導할  
것입니다. 이러한 公式的歸結로서 우리는 結論을 지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금 국가는 체계를 아끼는 것 같다. 참금 체계는 체계 만을 아끼는 것인 것 같다. 그 체계 자체는 結果的 位置에 있기 때문이 動機의 基礎이 되는 絶對的 神이 있으면 神觀과 一致화해 가지고 연계시킬 수 있는 思想的 體系를 갖지

ଶ୍ରୀମଦ୍ଭଗବତ

그 내용이 차기를 위하여 전략적 想想을 가지고 있는 世界를 料理 消化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家庭의 天國이 아닙니다고 말합니다만 아버지 부부의  
위에서 1‰% 주식하고, 부부는 아버지를 아끼는 그들이  
해서 그렇고 그들이 아끼는 주식하는 대상으로서 산업을  
가장이나 말로 드는 이 아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格言에 家和萬事成이라고 說입니다. 나라가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를 다스리는 主權者는 自  
己存在的價值가 자기의 主權爲主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빼  
서는 안 해서, 그 爾國民的主權 그 자체를 아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아는 것, 이런 나라가 되는 데는 그 나라는 天國  
이 될 것입니다.

이 아름아름한 세상에는 철학과 철학자가 있다' 理想的 世界는 철학과  
철학자로 가득하다' 그가 미처 몰랐던 것은 그에게 알 수 없고 世界的  
인 철학이 형성되었던 그곳에 바로 우리 인간들이 살고 철학을  
유도해온다는 사실이 깨닫힐 때면 세상은 理想의 세상이 되는  
평화의 세계인 것이다' 幸福의 세계인 것이다' 靈魂을 깨우고 세상을  
나누는 행위는 세상에 향기로운 향기를 퍼뜨리는 것이다'。

本人이 美國에 가서 駕을 기간내에 문체를 이끌어 칠 수 있겠던 그 동기는 궁금한 것입니다. 나는 韓國 사람이 되어 美國 사람으로 이상 미국을 살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밖이나 놀거나 이

이 땅에 살고자. 그게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지만 전 해서도 아버지  
나. 그에게서는 그만한 8000원짜리 가지고 그들을 위한 라.  
돈으로 농장을 살피는 데에 그들이 있는 이길이까지 그를 위  
해서 끊임없이 온갖 고생을 했다. 이들이 40년 고개를 들면서 농장  
그 끝에 우리 농장을 살피면서 농장을 살피면서 농장을 살피면서 농장을 살피면서.

그리고 그 외에 「北魏」이 「第3勢力圈」에 속하는 「支那」의 「北朝」으로서 「北魏」은 「支那」에 속한 「北朝」이다.

미국을 위협하는 국가가 되면 좋겠지만 될 것이라고, 그 정도로는  
이 송고한 사람을 저鄙할 수 있는 美國을 대체 만드느냐고  
노력하는 결과에 대해서는 짓눌고 싶다.

କୁଳ ପାଇଁ ରୁଷ ଠାର୍ମିତ ମହାରାଜୀଙ୍କ ମୂଳକୁ ଯେତେବେଳେ ଶାନ୍ତିରେଣୁ  
ଏହାମଧିକା ରୁଷଙ୍କ କୁରୁକ୍ତି କୁରୁକ୍ତି ରୁଷିଙ୍କ ପାଇଁ ହେଉଥିଲାଟାଟା । ତା  
ଗେ କୁରୁ ଏ ଦେଶପାଇଁ ମଧ୍ୟ ରୁଷିଙ୍କ ଯିନିବଳର ସୁଅଧିକ ଏ ରୁଷିଙ୍କରେଣୁ  
ଯେତେବେଳେ ଗର୍ବିତ ଆମାଦିର ଭାସେକୁ ଗର୍ବିତ ଆମାଦିର କେମରାପିଲା  
ନାହାନ କୁରୁକ୍ତି ଏହାର କୁରୁକ୍ତି ପ୍ରାଣରେଣୁପାଇଁ ରୁଷିଙ୍କ ପ୍ରକାଶିତ ଆ  
କୁରୁ  
କୁରୁକ୍ତି ଏହାମଧିକା ରୁଷ ଠାର୍ମିତ ମହାରାଜୀଙ୍କ ମୂଳକୁ ଯେତେବେଳେ ଶାନ୍ତିରେଣୁ

내가 서슴끼지 솔직하게 묻는다. 그에게 그는 대답한다.  
자요, 표정으로 알수는 없지만 그는 그에게 대답한다.  
자기가 표정으로 알수는 없지만 그에게 대답한다.  
표정으로 알수는 없지만 그에게 대답한다. 그에게 대답하는 그는  
라디오를 듣고 있다. 그는 그에게 대답한다. 그에게 대답하는 그는  
나는 그에게 대답한다. 그에게 대답하는 그는 그에게 대답한다.

低開發民族圈 아프리카와 러시아 그리고 그 나라들에 대해서는 이미  
아프리카와 러시아의 혼란 속에서 그들이 어떤 힘을 끌어들여 그들을  
지탱해나온다.

한국당은 그 사실을 인정하고 15만명의 투표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결정권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 金日成의 아들인 金正恩을 그 아버지와 함께 한동안 노동당의 주체로 일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난다. 이는 한·미 합동군사연습과 관련된 문제로, 그 결과로 한·미 합동군사연습은 취소되었다.

ଗୁଣ୍ଡାର ମଧ୍ୟ କରିଲୁଛି ଏହାରେ ସାହିତ୍ୟର ପରିମାଣର ବିଶେଷ ଜୀବନ ଗାସ୍ତ  
ଏ ଜାତିରେ ସାହିତ୍ୟର ଉପରେ ଏହାର ରୂପରେ ଓ ପରିପ୍ରକାଶରେ ଉପରେ ଉପରେ  
ଠର ପାଇଁଗ କଥାରେ 6 କୁ 42' ଅନ୍ତରେ କଥାରେ 48 କୁ 48 ଏକା  
ପାଇଁ ୧୦ କାହିଁଏ ଆଖିତରେ ଏକାକି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ଏ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କଥାରେ

“그건 그렇다 한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게 그만의 가치가 있다. 그것이 그 자체로 그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그것이 그 자체로 그만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라고 보고 알고 있다.

이 **한국** 것을 **반문구**하게 **되**는 **것** 그 **도대체** 文이 **무개**라는 **사람**  
이 **머리**가 **좀** **모자** **라**는 **않**느냐. 이 **한국** **생각**하는 **모르**지 **만**  
**문구**하는 **간단**하다고 **나**는 **보**는 **것** **아니**다. **기** **신**교 **회의** **목사**

보나도 가정교과서의 교양과목은 더 살피면 수 있는 바

이에 이어 척추는 척추로, 허리 허리로, 손 손으로, 발 발로, 그리고 손과 발을  
앞으로 끌어당기다. 그리고 가야한 손과 허리를 아끼지 않고, 그에 맞는 척추  
척추를 이지어 離形原則이요, 藥理이 가야한 손과 허리를  
손과 허리로 끌어당기며, 그에 맞는 척추를 이지어 손과 허리를 아끼지  
않고 손과 허리를 끌어당기면서 가야하는 척추를 이지어 손과 허리가  
손과 허리로 끌어당기면서 손과 허리를 아끼지 않고, 그에 맞는 척추  
척추를 이지어 손과 허리를 아끼지 않고, 그에 맞는 척추를 이지어 손과 허리를

前回の如きは、その間の経緯を記す。即ち、1955年秋に於ける「日本文部省圖書審査委員会」の審査結果によれば、『新編世界地図』は、その著者である筆者が「著者の立場から、政治的立場を示すもの」として、その著者としての立場から、政治的立場を示すものとされ、その著者としての立場から、政治的立場を示すものとされた。即ち、その著者としての立場から、政治的立場を示すものとされた。即ち、その著者としての立場から、政治的立場を示すものとされた。

କାହିଁ କାହିଁ

여기서 친구는 또 몽타뇰라 쟁취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어서 그들이 30년 전에 미국 대륙을 향해 서쪽으로 이동한 그들의 행적에 대해 이야기를 했고, 그들이 미국에 도착한 후에 미국에서 살았던 그들의 생활과 일상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 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특히 미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그들은 미국에서 살면서 미국의 문화와 사회, 정치, 경제 등에 대한 이해를 넓혔고, 특히 미국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다.

ଲଭିଣ୍ଟ ରୁ ସହିନ୍ଦ୍ର ଉପାଧିକୀୟ । ରାମାନୁ ତ ଅଚାର କଳେଖା  
ଗ କୁଣ୍ଡଳାଙ୍ଗ ଭୟକ୍ଷେତ୍ରର ଏହା ଏ ପ୍ରକାଶ କଳାର ଠକ୍କାର କଳେଖା  
କାହା । ମୁହଁ ମାତ୍ର ଗୋଟିଏ କୁଣ୍ଡଳ ଭୟକ୍ଷେତ୍ର ଏହା କଳେଖା  
କାହା ପରିମାଣ କାହାର ଏହା ରୂପର ଫଳାଫଳ । ଏ ଆହୁତିର କାହାର  
କଳା ପ୍ରକାଶ କାହାର ପ୍ରକାଶ କଳାର କଳେଖାର କଳେଖାର କଳେଖାର  
କଳେଖାର କଳେଖାର ।

ଗୁଣକର ପାତାଳି ରାଜକର ପାତାଳି ନାଶର ମହାତ୍ମା ପାତାଳ  
ପାତାଳମହାତ୍ମା ପାତାଳମହାତ୍ମା ପାତାଳ ରାଜକ ନାଥ ନାଶର ପାତାଳ  
ନ ପାତାଳ ନାଶର ମହାତ୍ମା ପାତାଳ ପାତାଳ ନ ପାତାଳ ନାଶର ସହାୟ  
କର ପାତାଳ ନ ପାତାଳମହାତ୍ମା ପାତାଳ ରାଜକ ପାତାଳ ନାଶର ପାତାଳ  
ନ ପାତାଳ ନାଶର ମହାତ୍ମା ପାତାଳ ନାଶର ମହାତ୍ମା ପାତାଳ

“이제 그만하고 싶어.” 그는 그만하고 싶어 했지만 그만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은 그만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과는 다른 그의 마음이었다. 그는 그만하고 싶어 했지만 그만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은 그만하고 싶어 했던 그의 마음과는 다른 그의 마음이었다.

କୁନ୍ତାମୁଣ୍ଡ ରାଜ୍ୟପାତ୍ର ଗ୍ରହ ରାଶିରେ ଯେତେବେଳେ ଛମ୍ବକୁ' କୁନ୍ତା  
ମୁଣ୍ଡ ରାଜ୍ୟପାତ୍ର ରାଶିରେ ରାଶି ସମୀକ୍ଷା ଦେବ ଛମ୍ବକୁ' କୁନ୍ତାମୁଣ୍ଡ ଏବଂ

선은 세계의 무리인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주의 구원인 것입니다. 한 국가單一民族圈의 단을 벗지 못한 그런 종교는 하나님과 함께의 전체의 뜻에 합해 설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世界를 救하는 것이 하나님과 뜻이기 때문이 그것을 구할 수 있는 가난한 단체의 차원을 어떻게 발견시키느냐 하는 문제를 두고 물려 간단하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家庭을 위해 있고, 家庭은 氏族을 위해 있고, 氏族은 국가를 위해 있고, 국가는 세계를 위해 있고, 세계는 하나님을 위해 있고 그 뒤로 세계를 위해 이룰 수 있는 사람 아니고는 전지전능하고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차례가 있음을 것입니다.

世界를 위해서、世界는 하나님을 爲해서 그러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세계를 위한 자리에서 서는 것입니다、나라를 위하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民族을 위하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種族을 위하여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家庭을 위하여는 자리에 선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한다면 이것은 아버지의 것입니다요、그夫婦의 것은 家庭의 것입니다요、家庭의 것은 氏族의 것입니다요、氏族의 것은 民族의 것입니다요、民族의 것은 國家의 것입니다요、國家의 것은 世界의 것입니다 韓國이 그 세계를 하나님과의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하나님의 것으로 누구의 것이 되나? 이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나가야만 여러분으로 100명이나

최고의 하도록 단련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뇨? 그 누구나 세계의 차원이 있고 세상은 그러한 육체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마약이 충동적인 그 하나님과의 차이 비로소 그러한 가치적인 존재가 되기 때문이 그것이 될 수 있는 그 100명의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전문을 짓는다면 위해서 사는 대사단이 家庭天國의 實現이 가능할 것입니다요、國家天國의 實現이 가능한 것입니다요、世界天國의 實現이 가능한 것입니다요、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이루어와 더불어 행복하고 이 세상이 동양이라고 종종을 추구 노래할 수 있는 세계로 이동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종교가 목적하는 천국、그 천국이 地上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입니다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地上天國이라니 전문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오늘 이 공간은 만찬회를 통하여서 이제부터 「위해 존재합니다」라고 이 공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돌아가서 서가 정에 서부터 혹은 전장에서부터、혹은 여기 교수님들이 많아 오셨지만 학원에서부터 내가 그런 수 있는 그 자체를 발견하는 데까지는 말씀하시는 보다 훨씬 더 넓은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고、제일의 계획대로 서의 주제로 체임을 당당히 한다는 차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부터 그런 수 있는 여러분들이 세계를 바라면서 여러분의 家庭과 여러분의 社會와 이 나라에 가입증한 하나님의 주체가 있기를 바랍니다。





# 선데이서울

1 / 26

제326호

설 테 이 서 를

# 文鮮明사가 統一敎의 어제 오늘

著名人士 650명 초대한 만찬회 베풀고



각계인사 650명을 초대한 조선호텔 만찬서 연설하는  
文鮮明씨와 부인 崔鶴子씨。

『**자신의 과거 처음 털어놓**』 강조

그동안 국대에서, 해외에서  
화제의 인물이 했으면서도  
그 자신은 항상 베일 속에  
가린 듯, 그래서 신비의 인물  
로 궁금증을 더해 준 文鮮明  
씨. 그가 1시간 동안의 연회  
를 주재하며 보여 준 풍모와  
연설 내용은 이런  
궁금증을

널어 주는데 큰 도움이 됐다.  
통일교회의 선도들은 그들  
의 교주를 「文선생님」이라고  
불렀다. 선생님이란 호칭은 文  
鮮明씨 자신이 연설을 할 때  
모이신 여러 선생님들  
하고 불렀으니까 특별한 존  
칭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은 일

『자신의 過去 처음 털어놔  
위하여 존재한다』 강조

제명인사 6백 50명을 초대한 회관 만찬회가 16일 저녁 6시 조선호텔 「그랜드·불룸」에서 열렸다. 統一教會(세계기독교 통일신령협회)가 베푼 「희망의 날 한국만찬회」다。文鮮明씨(55·통일교회 설립자)는 이날 국내에서는 20여년만에 처음으로 신도 아닌 일반시민 앞에 모습을 드러내고 연설을 했다。

지각特種 朴泰善장로 장가가던날

■文鮮明

列傳  
一  
統  
教  
의  
어  
제  
오  
늘

## 朴泰善장로 장가가던날

의장, 隆慶修 국회자금위원회 위원장  
俱道威 통일원 장관, 崔潤新 주교협 회장  
교협 회장, 孫慶山 대한통일당  
조계종 출무원장, 李恒熙 홍익대학교  
대총장, 林炳璣 반송영양 등  
장, 李坐榮 예총회장 등  
명인사가 모였다. 丁 국회의장은 축사를 통해서 文鮮明 총회장  
를 「해외에서 국위를 선양했던  
통일에의 선구자」라고 했다.  
10 시까지 계속된 만찬회는  
金康熙 악단의 연주와 한분

**The Sunday Seoul Weekly**, Jan. 26,  
1975.  
*Mr. Moon Sun Myung Reports On the  
Past And Present Status of Unification  
Church At a Banquet of 650  
Celebrated Guests.  
Emphasis on, "We exist for others"  
Sent his secret missionary to Japan.  
Harvesting successful missionary work  
in America.*

The Hancock Albo

西紀 1975 年 1 月 17 日 (金曜日)

「희망의 날」한국晚餐會  
文鮮明목사주최 7百여명참석

한국의 최초 한(통일교) 왕(회향의 날)에 조선호텔 그늘에서 열렸다. 지난해 12월 29일 일시 구국(한국)의 종교로 통일설무사가 주최한 회향의 날 한국 단찬회는 6시 조선호텔 그늘에서 열렸다. 16일 일한 회장은 윤관상(林孫鍾信), 윤관상(尹觀相)으로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4인의 사헌(司憲)과 7인의 법관(法官)으로 구성되었다. 회장은 윤관상(尹觀相)으로 10명이 참석하였다. 이들은 4인의 사헌(司憲)과 7인의 법관(法官)으로 구성되었다.

# 한국의 보



◇통일교회 文鮮明목사가 주최한 「희망의날」 한국만찬회가 16일하오 각계인사 7백여명이모인 가운데 조선호텔에서 열렸다.

부 신들이 文씨를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나타난 동방의 빛 등으로 표현하는 神格化 경향과는 좋은 대조를 이루었다. 초대객을 영접할 때 文씨는 그 부인 韓子서(35)와 함께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문 선생입니다』라고 짧게 인사했다. 그것은 자신을 신격화하는 고주의 군림하는 자세 아니라 평범한 한 시민 모습이었다. 그는 연설을 시작하면서『그동안 숨한 물의 물 일으켰던 문 선생입니다. 여러분은 도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문선생이나 궁금해 하신 줄 믿습니다. 나는 진

애기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그만 그러자면 문선생이란 어찌나 중금했던 여러 부의 인물이나 중금했던 여러 부의 서운해 하실 것 같아서 얘기를 해야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연설의 서두를 꺼냈다.

文씨의 목소리는 약간 듯한 허스기 목이 신 때문에 지 목청을 높일 때는 소리가 잘 라져 나왔다.

그의 어조는 그와 함께 외여행을 하면서 통역연설을 해왔고 이날 만찬회의 사회를 맡은 朴相熙씨(한국문학자)가 나온 종자)의 명과하고 유례한 마 습씨와 비교해서 칠성 문준에게 한 것이었지만 선두地位를 차

**The Hankook Weekly**, Jan. 26, 1975  
Title: *Unification Church Curtains Up.*  
*"Re-landing Whirlwind"*  
Unprecedented dinner party in all  
history, cost of 10,000,000 Korean  
won.  
Day of Hope banquet looks like  
General Assembly of all celebrities.

*Established churches receive great shock at the accomplishments by Unification Church.  
360 One World Crusade members from foreign countries landed.  
Real estate worth 100 million dollars in U.S.A. alone.*

# 週子한국

2 차례인 62년 6월 4일, 74 쌍이  
혼례식을 올릴때도 청파동교회선  
새벽에 식을 올렸는데, 신랑은 두  
루마기와 비슷한 독특한 「모드」  
의 흰 예식복, 신부는 한복에 레  
이스로된 너울을 썼으며, 주례이  
文목사는 복두침성이 그려진 흰  
관을 쓰고 구슬이 달린 예복을  
입었었다.

그러나 63년 7월 24일의 제 3 차  
결혼식부터는 시민회관에서  
되 결혼식을 올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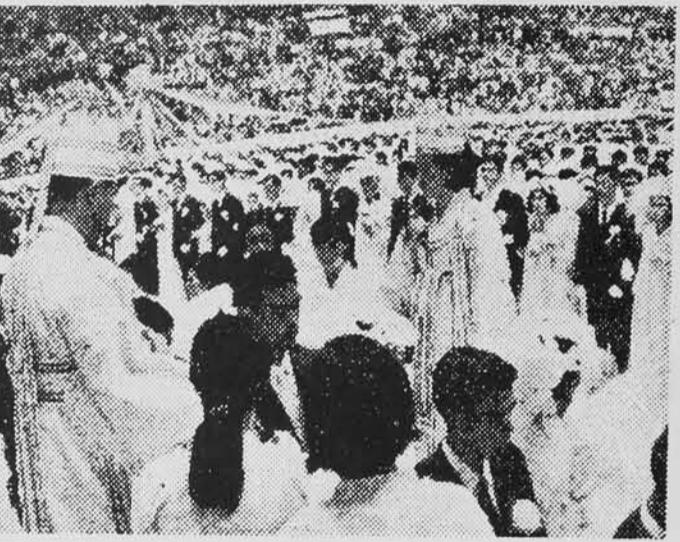
이때만 해도 주례, 신랑·신부의  
옷차림은 전과 비슷했지만 신랑신부의

부는 1백 24쌍으로 늘어났고, 시민회관밖에는 5색으로 단장한 새 나라차가 모았다. 4백 30쌍이 결혼식을 올린 4차(68년 2월 22일) 때는 당시의 화환이 서울시장, 국회의원 이런 통일교가 지난 70년 10월 21일 서울장충체육관에서의 5차 때에는 외국인 신랑신부 포함한 7백 쌍을 참가시키면서 국제적인 통일 선을 보이기 시작했다. 외국인부들도 모두 한

복을  
제보  
온다.  
오는 2월 8일의 6차 때는 한  
국 신도는 5백 여 쌍이고, 외국 신도  
가 21개국에서 9백 쌍이나 참가  
한다고.  
미국 일본 화란동 세계 각국  
에서 오는 28일 까지 점보기 편이  
나 釜山 페리호 편으로 오는 9백  
쌍, 1천 8백 명의 외국인 신도  
들은 「한국」을 「아버지」(父祖)사를  
칭함) 나라로 모시는 신도 경례  
3년 이상인 열성 신도들이라고 교  
회의 한 담당자는 말하고 있다.  
외국인들 가운데는 아직 상

「명으로  
이 기  
평생되어  
동대는  
노스웨스  
스트」 점보기로 일본에 삼  
류, 현재  
일교 측의  
설명이다.  
이 대원들은 외국에서의 선교  
활동방법 그대로 서울 등 전국의  
7대 대도시에서 3일정도씩의 휴식을  
망의 날 페스티벌 이라는 부통령  
회 같은 모임을 가진다.  
또 이들은 개별적으로 각 가정  
을 방문하거나, 거리를 돌며 전도를  
하며, 또 당국이 허락한다면 가  
두 집단선교 활동까지 벌인다는 것.  
통일교를 전도하는 휘장을 두  
거나 「샌드위치」 선전판을 몸에

◇ 지난 70년 10월 21일 장충체육관에서  
 쌍의 통일교 신도가 참가했던 합동결혼식 7백 77



◇ 지난 74년 뉴욕주의 메디슨스퀘어 가든 대집회  
동대원회에 서 집단가두전도를 벌이고 있는 통일기



◆ **점보기의 외국 전도 대자**  
이 있다는 게 교회 측의 얘기.  
이 들 결혼식 망자들은 결혼식 날 까지 있는 통일교수련도장이나, 서울신사에 호텔에 묵으면서 각각의 망자 5명 가운데서 文목사가 서 희생 택해 주는 대로 짭을 맷어 식을 온다는데.

전 군종감黃鍾植 목사등이 귀빈으로 초대되었고, 일반참석객 가운데도朴大善연세대총장, 白鐵軒 국펜클럽회장, 李崇寧박사, 李春來예수회총회장, 金容完전경련회장, 申相模씨, 裴祥明상명대학장, 작가金東煥里씨와 係素姬부부, 그리고 南昭明환신흥종교문제연구소장을 국내각 참석한

企業등의 不動產만해도 1 억달러상당

40여개국 2백만信徒, 基金活動대원만 3만명

기성宗教界서도 엄청난 사업에 큰衝擊

국 40 명의 기원을 대원들로 남녀대원들로 계자는 말하고 있다.

【五】  
다) 고 전했다.  
서구인들의 외명을 받고 있는 서 양기독교 대신 기독교적인 교리에 동양의 음양학적인 요소를 삽입한 통일교가 등장하면서, 또 역사의 「예수는 육체구원에는 유험과 육체를 함께 했다. 나는 구원하겠다」는 설교에, 그리고 연예단을 결론인 전도집회로 부모 말도 잘 안듣는 서구의 젊은이들에 크게 같은 얘기이다. 「어필」되고 있다. 어쨌든 외신을 통해서만 들어온 통일교선종이 한국에 재상륙해 거울지에 장안의

# 動產만해도 1 억달러상당 信徒, 基金活動대원만 3만명 도 엄청난 사업에 큰衝擊

가지고 있어, 외지에서도 「文목사」로 소개된 바 있다.  
林普熙씨는 이런 막대한 재산은 세계의 40여 개국에 흩어져 있는 1천 2백여 개소의 통일교 회에 들어온 2백만 신도(국내는 30만)들의 헌금, 전세계에서 3만 명에 이르는 기금 활동 대원들이 삼, 꽃등을 팔아 벌여들인 수입을 취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1차 합동 결혼식은 통일교 창립 7년 만인 지난 1961년 5월 15일 새벽 4시께에 서울 용산구 청파동 1号에 있는 청파교회(통일교 종부)에서 비공개리에 72쌍의 결혼식을 올렸는데, 교회가 좁아서 「파트」로 나눠 혼식을 치렀다.  
주례는 文목사와 혼은 부인 韓

★學士취직 不況…'特講'까지

★서울에 再上陸한 統一敎선풍

★흔들리는 '플레이·보이' 王國

# 暮오른 통일교 再上陸선풍

史上최대 「1천만원짜리 파티」이어 매머드行事



◇ 지난 16일 조선호텔에서 열렸던 1천만원짜리 통일교·파티.

## 한국대상 3단계 막강한傳道사업: 첫번째의 「희망의 날」 名士총회느낌

◆ 1·2·3  
총회 같은  
을 비롯해  
崔德新  
한국종교  
인협의회장  
孫慶山

# 北全道平

The Photo Jeonbuk

W. W. P. 特約



↑ 워싱턴空港서 그곳 信徒들의 歡迎을 받고있는 文교주



↑ 復興會서 외치는 文교주

The Photo Jeonbuk Monthly,  
November, 1974  
"Unification Church Arrousing  
Whirlwind in America"  
Several Hundred Thousands of  
Human Waves at Revival Meeting.



↑ 워싱턴 復興會의 前夜祭인 3천명의 名士초청 大晚餐會

그리고 우리 民族에 대한 비풀어진 이미지를 개선、優秀민족임을 海外에 宣揚하기 위해 리틀·엔젤스團을 조직하여 世界朝野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으며 또한 韓國(5백명)과 日本에 각각 大學教授를 會員으로 구성한 「世界平和教授아카데미」를 운영하여 「平和學」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季集春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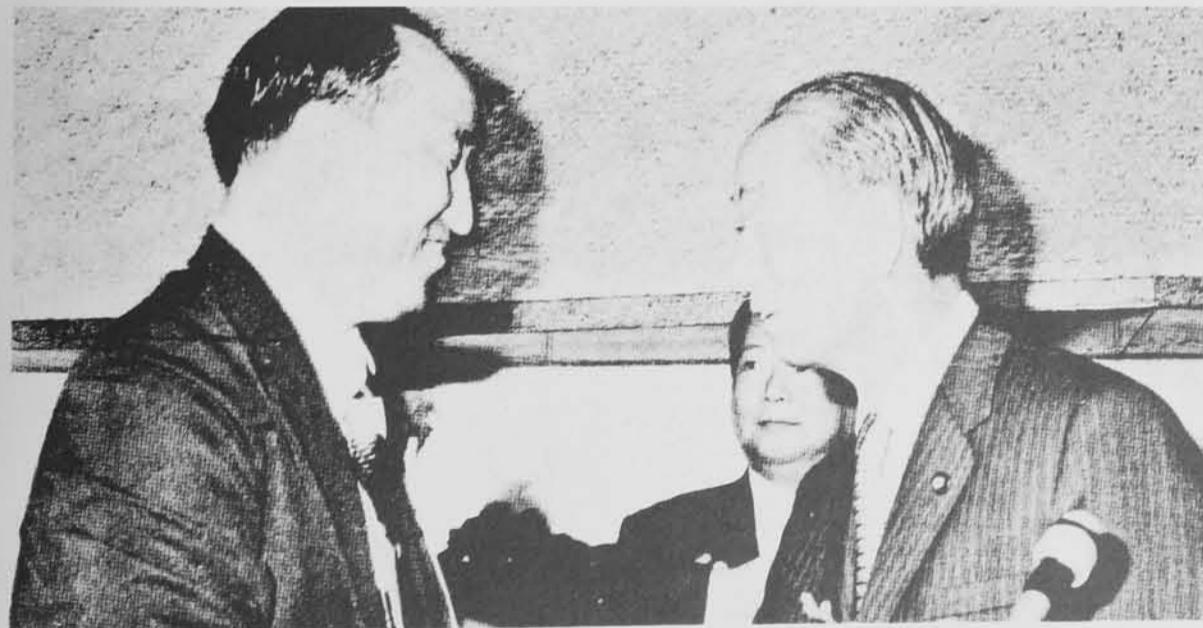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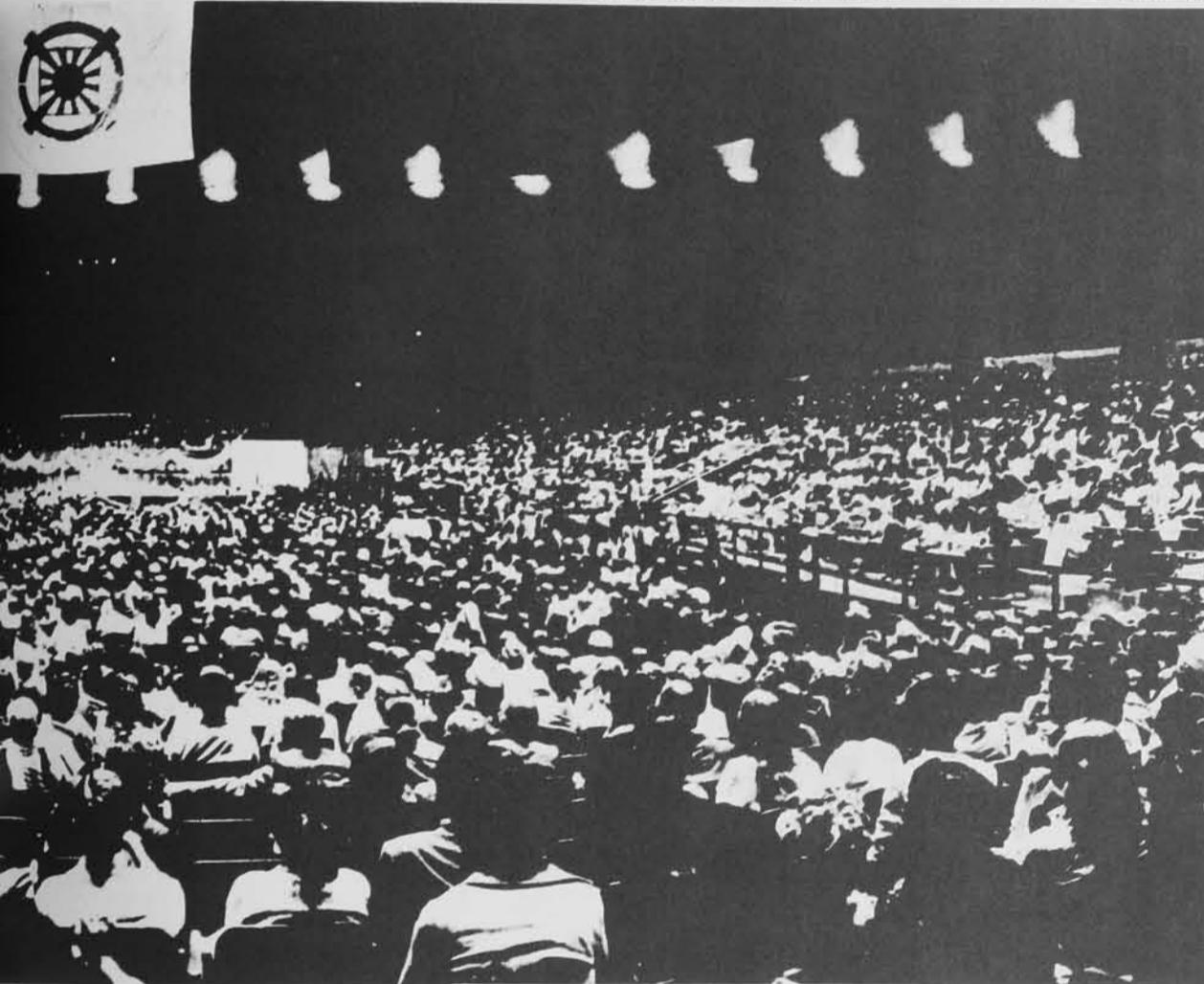
이려한 한국의 이른바 一教(正式明칭)는 지난 51년에 創教 한 이래 國내에 38만、日本에 10만、美國에 3만5천을 비롯、世界 40개 국에 약 1백만의 教徒를 거느리고 특히 國內보다 海外 宣教에 더 力點을 두고 있다。

그 한 예로 현재 文교주는 국제 教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世界 最高의 빌딩인 뉴욕의 엠파이어·스테이트·빌딩(1백2층)의 買入도 서둘고 있다는 說이 있다.

**國際勝共聯合과 리틀·엔젤스**

統一教는 산하團體로 韓國을 비롯、世界 40개국에 國際勝共聯合이란團體를 결성하여 國内外서 반공 투쟁을 벌이고 있는데 國內에서는 京畿도 高陽郡 九里면 水澤리에 거대한 勝共修練所를 개설하여 수많은 國内外 官民지도자들의 勝共위탁教育도 실시하고 있다.

↓ 場内外에 4 萬人波가 雲集한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의 大復興會



↑ 渡美도중 東京서 日本의 次期首相후보인 福田財相의 迎接을 받고있는 文 鮮明교주

# 美國서 선풍일으킨 統一教 : 復興會에

## 數 10 萬人波

美國의 近着 타임誌에 의하면 韓國의 統一教 文鮮明교주가 지난 9월 18일 뉴욕의 매디슨·스퀘어·가든에서 数 10 萬名의 청중을 동원, 大復興會를 열어 美國社會에 한국 統一教의 선풍적인 봄을 이루었다는 것이다.

### 反共으로 世界統一을

하나의 平和世界를 건설하여 地上樂園을 이룬다는 教理로 韓國에서 創教된 統一教의 文鮮明교주는 美國에 世界統一의 據點을 굳히기 為해 지난 72년 초 渡美、불과 3년간의 布教로 美國社會에 봄을 이루었다.

文교주는 이미 확보된 美國人信徒 외에 日·英·獨·佛·伊·加·豫 등 10여개국의 2천명에 달하는 热誠信徒들로 편성된 世界統一十字軍團을 이끌고 뉴욕의 링컨·센터와 카네기·홀을 위시, 全美 50개洲를 누빈大小復興會를 통해 지난 9월 현재 약 3만 5천의 信徒를 얻었다.

### 뉴욕에 2개修練所와 8개敎會

이와 같이 話題를 모은 統一教는 경제大國인 先進제국 信徒들의 엄청난 献金과 美·日등에서 경영하는 수많은 산하企業등에서 얻은 豐富한 자금으로 뉴욕에 3백만弗짜리 대저택과 또한 巨大한 아파트와 舊神學大學을 이룬다는 教理로 韓國에서 創教된 統一教의 文鮮明교주는 美國에 世界統一의 據點을 굳히기 為해 지난 72년 초 渡美、불과 3년간의 布教로 美國社會에 봄을 이루었다.

文교주는 이미 확보된 美國人信徒 외에 日·英·獨·佛·伊·加·豫 등 10여개국의 2천명에 달하는 热誠信徒들로 편성된 世界統一十字軍團을 이끌고 뉴욕의 링컨·센터와 카네기·홀을 위시, 全美 50개洲를 누빈大小復興會를 통해 지난 9월 현재 약 3만 5천의 信徒를 얻었다.

이처럼 매일傳道의 제1차 대단원을 이루하기 위해 지난 9월 18일 뉴욕에서 제일 큰 매디슨·스퀘어·가든 등处를 열어 世界第一의 人復興師인 빌리·그레이엄을 능가했다고。

이集會를 위해 30만弗의 宣傳費로 大量 벼보作戰을 펴 全 뉴욕市 일대에 文교주의 벼보바다를 이루고 많은 머

들이 사들여 뉴욕市내 만도 2개의 국

學을 세우고 美全洲에도 2百 40個

제指導者수련소(神人승련소)와 8萬명의 人場券을 뿐만 아니라 13만명의 참

教會를 세우고 美全洲에도 2百 40個

개 教會를 세우고 美全洲에도 2百 40個

教會를 세우는 등 舉重신 成長을 거듭

했다.

人波 정리에 팔부러진 警官도

그리고 前夜祭인 9월 17일 밤에는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월돌프·아스토리아

호텔에 1천 7백명의 名士를 초대,

1人當 20만Fr의 대 만찬회를 열어

뉴욕의 最上流인

Total Story on Controversial 4 Years of Activities of Founder Moon Sun Myung of Unification Church.  
800,000 followers as new rising religious movement throughout the world.  
Real estate value of 120,000,000 Korean won.

# 週刊京郷

주간 경향

# 文鮮明 동의교 王明道 教主의 마음 많음 濟美 4부의 全內幕

**信徒들 땅콩장사로 말썽, 60만**

달러 들여 매머드 傳道大會도 열고



이른바 「文선생」의 본을의 말을 듣기위해 미국각지에서 물려든 統一敎신도를.

최근 文鮮明씨(統一敎敎主)의 추종자들이 미국에서 추방을 당할 뻔했는데.... 세계 39개국에 統一敎 教旗를 꽂고 기업을 토하고 있는 文씨—。 재산도 엄청나고 인기도 가십도 엄청난 그의 별난 미국생활 4년의 베일을 벗겨본다.

文鮮明 통일교도사 헌법은 帶美 4년이 全内幕

全內幕

영토권을 갖고 생활하는 것에 대해 해상 우리나라 일부 단에서는 그 각 교

『이민갔다』는 소문이 있으나 한국의 통교족은 전 활동을 위해 장기간 체류하고 있을 뿐이라고 해명하기 도. 같은 협회측의 해명이 사실인지 여부는 알수없으나 文씨는 일년에 두세번씩 우리나라에 와 한국의 통교직장을 도자를 겪려하고 돌아가 곤란하다. 현재 미국에는 막대한 통교소유의 재산이 있다. 이각 은 재산 때문에 文씨가 이미 간것이 아닌가하는 추측을 자 아내기도 했지만..

최근 뉴욕 타임즈 등 미국 통일교 신문들이 공개한 계산목록을 보면—  
뉴욕주 「베리타운」에 있는 신학교 건물(체육관) 예배당과 구 2백 54 에이커의 임야 등 셋  
가 1백 50만 달러)과 「베리타운」의 22에이커짜리 부동산  
(식가 86만 달러 상당) 등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여 9억 5천만 원에 해당하는 재산이 있다. 이밖에 현재 그가 살고 있는 주택과 주택부지를 합  
하면 약 12억 원 정도의 엄청난 재산을 갖고 있는 것이다.

**미국移民說의 배경**

전도 된 이 작기 고 있 고 있 는 통일교신도를 규합, 데모를 통해 닌슨대통령 지지운동을 벌였다.

이 같은 그의 지지운동에 잡동(?) 한 탓인지 닌슨미국 대통령은 지난 2월 백악관 으로 文체를 조청, 장장 1시 이 날 백악관 맞은편 라파 협회 35)。

그러나 이 같은 통일교도들  
기원과 지지에도 불구하고  
그후 얼마 안 있다. 너는  
온 권좌에서 물려났다.

7월 77 쌍이란 사상 초유의  
합동결혼식 (70년 10월 21일 차  
중재육관)을 거행, 국내교계  
를 떠들썩하게했던 統一敎會는  
이와같이 미국에서의 사전동  
으로 이제 세계인의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더구나 10만달러의 막대한 협  
상금을 내걸고, 전세계인류를

대상으로『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신의 예정이니, 인간의 잘못이니』는 제목의 상논문을 모집,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하 고 있는 세계기독교통일신령회 회의 참시자 文鮮明씨의 미국 생활은 어떠한가.  
지난 9월 18일 미국 뉴욕주에 있는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문인 전도대회에서 文씨는 2만여명의 청중들이 모인 가운데 2시간 반동안에 걸쳐 설교를 했다. 설교제목은『기독교

닉슨支持선언 내고

통일교신도들이 이 밀법을 신  
겨가면서 장사를 하고 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한국통일교교주 文  
씨의 추종자 20여명이 미국에서 양조 땅콩장사를 하거나 물류를 일으켜, 이를 통해

금도 포함되지만 같은 자신의 신도들의 한  
가 벌이고 있는 사업을 통해 차지하고 있다. 이보다는 그  
벌어들이는것이 더 큰 비중을  
체는 통일산업 일화제약 리  
틀엔젤스 국제승용연합회 주  
간종교신문사등등 이중에서도 특히 일화제약의 인삼차는 막 대한 외화를 벌어들이고있을 뿐아니라 미국, 일본, 영국, 불란서등 해외 39개국에서 선하고 있다. 마련하는데 큰몫을

**文教主22년간의 발자취**

전세계적으로 신도수는 8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51년 1월 27일 文씨가 釜山 피난 당시 부두 노동을 하는 동안 갖 어려운 현실을 극복하면서 범넷골 水晶洞 影島동지 를 전전하는 동안 「돛」을 같 이하는 몇 사람의 신구를 엄 52년 世界 기독교 통일신령 협회를 설립한 이른바 통일 교는 밤족 22년 만에 전세계적인 신종교로 군림하게 된 한때 혼음사전등으로 文교 주가 구속수감되는 역경까지 겪었던 神一敎의 「제림주 예수 가 한국땅에 오실것」이라는 믿음이 현실로 나타날지 현 데로서는 미지수이다. ■

The Kyunghyang Weekly, Jan. 26,  
1975.

"Return of Founder Moon Sun Myung  
of Unification Church"  
Foreign missionary work and

*Foreign missionary work and patriotism is his continuing life.*

을호저이등운영  
宣教資金별고

미국 뉴욕주 메디슨스퀘어가든에서 지난 18일 열린 통일교전도대회에서 광적인 제스처로 강연하는 통일교교주 文鮮明씨.



# 週刊京鄉

1/26 318号

주간 경향

鮮明목사가 통일교가 창립된지  
20년 만에 종교계인사는 물론  
경계 재계 학계 문단 인사  
등이 참석한 공개식상에 처  
음으로 나타나 일반의 눈길  
을 모았다.

분으로 들어찬 손님들에게『국내에서 물의를 일으켰던 내가 멀리 미국까지 가서 말썽을 니까 도대체 문이 한 사람인가 하는 호기심에 이렇게 많이 온것으로『안 있다』고 말해 장내에 폭소가 일기도 했다.  
— 그동안 여러 가지 활동을 했다는 소문이 들리던데...『여러 활동을 하다 보니 나돈 것 같기도 하고...』

기프로에서 74년 미국에서 74년 우명해진 동양인이 누구 나는 질문이 나왔었대요. 이 때 한 여인이 일어나 레븐 문 선명이라고 맞혀 6천 5백 달 러의 상금과 자동차 한대를 상 품으로 타는 영광을 차지한 일이 있었었습니다』

간사회는 급속도로 동물의 세  
계와 다름없는 사회가 되어  
나가고 있어요. 미국의 젊은  
이들을 비롯 세계 각국의 젊은  
이들은 현재 써어가고 있  
습니다. 따라서 도덕 혁명이 시  
급해요】

A black and white photograph showing a man in a military-style uniform with a cap, standing in front of a large crowd. He is looking towards the left. The background is filled with many people, some appearing to hold up signs or banners. A prominent vertical banner on the right side of the frame contains the Korean text "대한민국", which translates to "Republic of Korea".

한때 사이비 종교 혐의로 교도소 생활까지 했던 統一敎 창시자 文鮮明 목사가 20년만에 공개석상에 나타나 6백40여명에게 1인분 8천 원 상당의 저녁식사를 대접하면서 『文鮮明이는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기업을 토했다. (시진은 조선호텔 鮮唐에서의 통일교만찬회 광경, 원내는 文鮮明목사)

『NBO-17V 남한국의 광화』  
하는 이외에 애국하는 운동만으로 일관해 왔어요. 대표적인 애국운동으로는 지난날 유엔총회 때 68명의 유능한 통일교신도를 총회로 비에 보내 우리측 앙을 지지해 줄 것은 강력히 요청하는 한편 70개국의 대사를 미국에 있는 통일교 영빈관에 초대, 우리편을 지지해 줄 것을 눈물로 호소한 것을 들 수 있지 요』

— 미국의 한 종교지도자는 빌리 그레하이 20년 걸쳐 이룬

취 했다고 논평까지 했다는데요.『내보좌인인 차관원한국문화재단 총재가 미국 강연 활동 보고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실입니다. 72년 2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 강당에서 첫 강연을 한 이래 뉴욕 카네기 허리 모임, 아주 최근인 74년 9월 18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 회장에서 2만5천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설교를 한 것 등을 보고 그렇게 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회마다 성화을 이루자 文선생에 대한 지명도가 높아 방송국에서 文목사를 알아맞히는 퀴즈문제까지 나왔다가

M-Z-SCCOP

M-Z-SCCOP

취 했다고 논평까지 했다는데요.『내보좌인인 차관원한국문화재단 총재가 미국 강연 활동 보고에서도 말한 것처럼 사실입니다. 72년 2월 미국 뉴욕 링컨센터 강당에서 첫 강연을 한 이래 뉴욕 카네기 허리 모임, 아주 최근인 74년 9월 18일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 회장에서 2만5천명의 군중이 참가한 가운데 설교를 한 것 등을 보고 그렇게 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집회마다 성화을 이루자 文선생에 대한 지명도가 높아 방송국에서 文목사를 알아맞히는 퀴즈문제까지 나왔다가



1 Congratulatory remarks by House  
Speaker Chung Il Kwon.  
2 Col. Pak reports on the Day of Hope  
campaign in America.



*Where there is real love and life, there must always follow  
sacrifice—sacrifice for others.*

*Sun Myung Moon  
August 11, 1974*

